

기획연재 - 민주화운동기념관

대영박물관, 제국의 문화, 문화의 제국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전통 파괴’를 근대화와 동일시했던 경험을 가진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자신들이 가진 것을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었던 근대의 종주국 영국. 그들은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전통을 포장해서 정치적으로든지 상업적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위대한 제국의 식민지 침탈의 포획물들 또한 자신들 것이다. 대영제국박물관의 파르테논신전의 뜯겨온 벽 한쪽이나, 이집트의 거대한 석상들은 이들이 얼마나 식민지 약탈의 경험, 근대의 횡포를 당연시하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그레이트 킹덤(Great Kingdom). 영국은 아직 그렇게 불리고 있고, 영국 스스로 그 제국의 간판을 내릴 의향은 추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유일하게 미국 부시의 제국주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추종의 나라, 그래서일 것이다. 거리에는 빠리나 뮌헨 등 독일의 도시에서는 드문 맥도날드와 피자헛이 도처에 즐비한 것이 구제국과 신성제국의 세기의 동행의 오늘을 실감케 하였다.

그러나 제국의 하루는 참으로 각박하기 그지 없었다. 고고하게 바바리 깃을 세우고 휘장을 빛내지만, 아침에 빵 한 조각과 커피 등 차 한 잔, 점심에는 공원이나 한길 가에서 기다란 샌드위치 한 조각을 베어 문 사람들, 피쉬앤 칩스 외에는 자기음식이라 부를 수 있는 뭐가 없는, 아직도 여왕이 있고, 근위병이 있고, 그것이 최고의 문화상품의 하나인 제국의 찌꺼기, 아편을 사지 않는다고 무력침공을 하고 동아시아를 세계사의 뒤안으로 밀어넣었던 그 무도한 제국의 꿈. 그들이 세계를 제패한 흔적은 영어와 그리니치 천문대의 세계 시각의 표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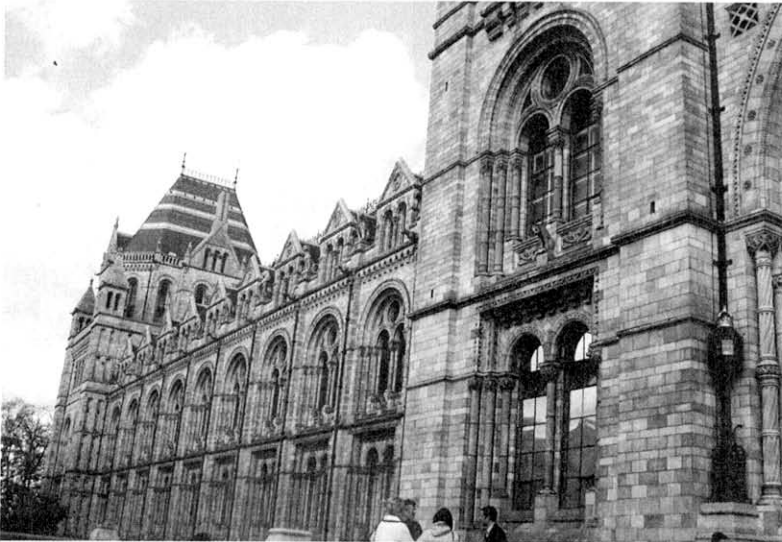
식민지 침탈의 포획물인 람세스 2세 상과 파르테논 신전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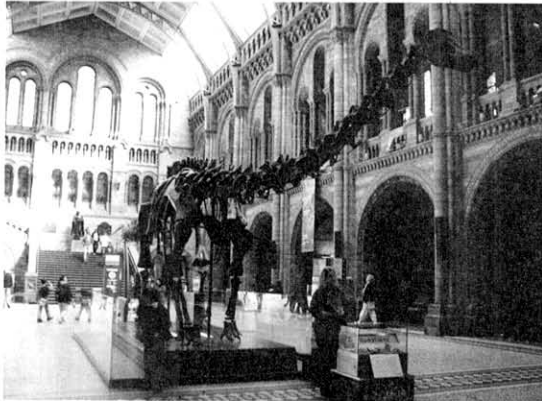
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그들은 아직도 넓고 깊은 듯, 세계 삼대 박물관의 하나인 브리티쉬 뮤지엄, 대영박물관의 거대한 이오니아식 기둥을 바라보는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다. 제국과 문화, 문화와 제국의 절묘한 결합, 그 종횡적 표상은 그들의 유명한 컬처 스테디, 문화연구저력 또한 다시 성찰하게 하는 것이다.

세계를 제패한 흔적의 그들

대영박물관은 세계 최대의 인류문화사 자료를 수집해 놓은 인류문화의 보고이자 문명의 유산을



1880년대에 이주하여 독립한 자연사 박물관(위)과 그 안의 공룡 전시(아래)



간직한 세계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17세기 이후 유럽의 박물관들은 공공성의 의미를 띠고 만들어지는데, 특히 대영박물관은 총괄적인 박물관이자 도서관으로서 창립됨으로써 그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의회법에 따라 운영과 미술품의 수집 및 복원이 이루어지고, 그를 위해서 영국 의회는 자금을 할당하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적이거나 일반 간행물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기증해야 하는 등, 자료의 집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영박물관의 전시물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기증

받거나 식민지 시대에 약탈해온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한데, 그 출발은 1753년 한스 슬런 경(Sir Hans Sloan)과 로버트와 에드워드 할리(Robert and Edward Harley) 백작의 수집품을 기반으로 설립, 의회가 자금을 모아 1759년 1월 15일에 일반에게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런던 외곽에 있는 블룸스버리(Bloomsbury)의 몽테뉴의 집(Montaigne house)에 박물관이 있었으나 그 규모가 1세기 동안 성장하여 초기 몽테뉴의 집은 일정한 단계에 따라 철거되었고, 1823년 로버트 스마이크 경(Sir Robert Smirke)으로부터 동생인 시드니 스마이크 경(Sir Sydney Smirke)까지 박물관 이전이 추진되었다. 건물의 주요 부분은 1820년대와 1850년대 사이에 세워졌는데, 1853년 그리스 이오니아식의 44개 원주가 받치고 있는 석조 건물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맑스가 자본론을 쓴 곳으로 유명한 원형도서관은 시드니 스마이크와 출판국, 안토니오 파니찌 경(Sir Antonio Panizzi)이 공동으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로버트 스마이크의 사변형의 안뜰(Inner Courtyard)에 더해져 1857년에 완공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축이 이루어져, 총 340,000ft(약 31,567m²)의 규모로 조성되기까지, 고전 갤러리와 아씨리안(Assyrian) 갤러리(1880년대~90년대), the White Wing(1884년), 에드워드 7세 동상(1914년), 드빈(Duveen) 갤러리(1932~62년)와 the New Wing(1979년)이 새롭게 선 보이는 과정을 거쳤다.

사우스 켄싱턴(South Kentington Street)에 있

는 고창한 몇의 자연사박물관은 1880년대에 이주, 독립했다고 한다.

도서관 또한 판크라스 성(St. Pancras)에 새로 마련되어 블룸스버리에 있던 도서관 소장품이 이전됨에 따라 대영박물관은 부족한 공간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독자적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다. 44개의 이오니아식 원기둥이 당당히 떠받치고 있는 그리스 양식 건물 안에 숭한 인류문화의 유산들,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키프로스, 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수집품과 전리품들이 94개의 전시실에 나뉘어 전시되고 있는 대영박물관은 한해 4백만에서 6백만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인류문화박물관이라는 이름은 결코 허명이 아닌 것이다.

세계 최대의 인류문화박물관

방대한 문물과 정보를 담지하고 있는 대영박물관은 학문연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소장품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고, 일반인을 포함한 방문객들의 수는 범세계적으로 지속적 안정세를 이루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전시와 강연, 교육, 출판 등 내용적으로도 세계적인 학술문화의 중심과 문화교육을 통한 세계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였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

대영박물관은 근대박물관의 발전과 더불어 자기변신을 거듭해왔다. 1974년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박물관사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적 전기를 제기하게 되는데, 박물관이 “물적 총화에 머물지 않고 보다 시대문화를 총체적으로 조직하고 계획하는 행위”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박물관이 전시 위주의 개념에서 수집-보존, 교육-

보급, 조사-연구의 본연적 내재 기능을 사회교육으로 크게 확대하여 자기외화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박물관이 그 운영을 관리단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 측(시민)의 주체적 동의에 의해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박물관이 고전적 의미에서 전제군주나 귀족계급의 자신의 전리품 수장고로부터 공공성의 영역을 올바로 획득해 가는 전환과정에 다름 아니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화, 일방향성 사회화란 결국 일방적인 제도 차원과 정치적 이념 표명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고, 이는 제3 세계의 기념관 건립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들이다.

대영박물관 안의 전시실(위)과 카페(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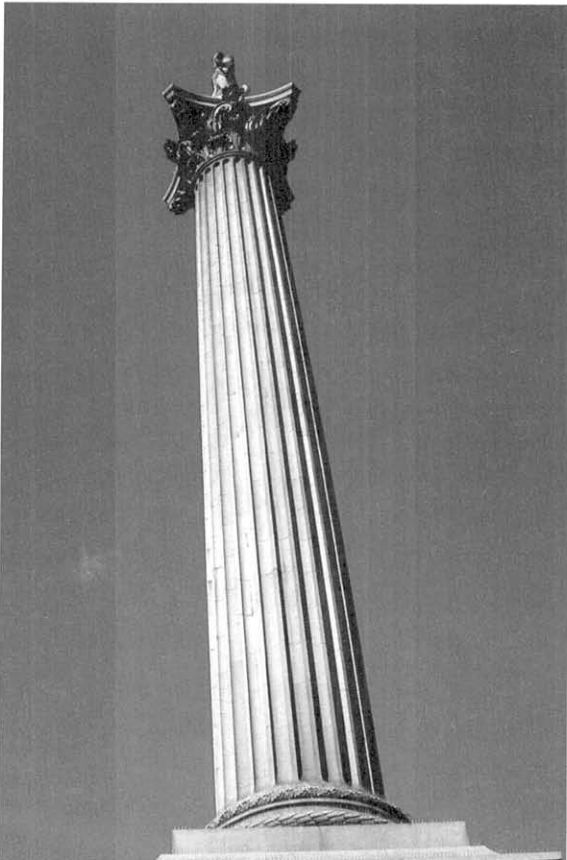
전리품 수창고에서 공공성 획득으로

한편 20세기 말엽에 접어들면서 박물관은 그 사회화 의미를 보다 확대하게 되는데, 다름아닌 단일 종합박물관체제가 갖는 든중한 행보가 아니라 장르 분화를 통한 특성화 과정을 통해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보다 사회성을 높혀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영박물관은 이러한 박물관의 현재적 존립의 생명력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래서 자기변화를 시기적절하게 시도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우선 시설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1998년 대영도서관이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함에 따라, 1백 50년간 폐쇄했던 중앙 안뜰을 개방하게 되는데(대영박물관 설계자인 로버트 스마이크는 관람객들이 한 갤러리에서 관람 후 다른 갤러리로의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에 정원을 설치했으나, 박물관 열람실의 서적 보관 공간확보문제로 개관 7년만에 정원을 폐쇄했다.) 복구공사비용 총 1억 파운드의 공사를 끝내고 '유럽 최대의 안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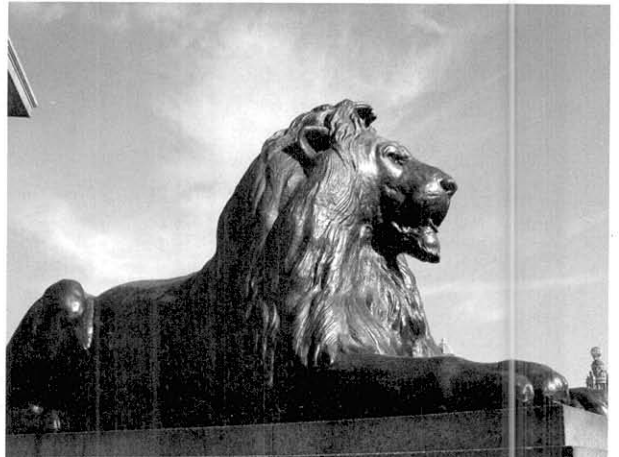
자리매김되게 된 것이다.

블랙풀의 해양휴양지에 이어 1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영박물관, 그것은 1년에 5백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영국 제2의 관광명소이다. 그러나 대영박물관은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회계 담당자가 없는 등 경영상의 문제점이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바 있다. 제국의 면모답게 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경영문제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면서 급기야 재정담당 이사를 두게 된 것이다. 이 역할은 탁월한 경영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전문가 수잔나 테이번이 맞게 된다. 그녀는 파이낸셜 타임지 경영 책임이사, 피어슨 그룹 재정이사를 역임하였는데, 그 경력을 바탕으로 박물관이 사회적 공공기관이지만 거기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가운데, 박물관을 기업경영 차원의 운영과 수익모델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물론 명분은 대영박물관을 보다 적극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자구노력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 여성 경영책임자, 대영박물관의 변혁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이후에 테이번은 유수의 재벌기업들(영국석유회사 브리티시 피트롤리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세인즈베리, 포드사)을 박물관의 후원으로 조직해감으로써 국가와 자본의 결탁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대영박물관의 공격적 마케팅전략을 수행해갔다. 기업들로서



트라팔가 광장의 사자상과 하늘을 찌르는 넬슨 제독의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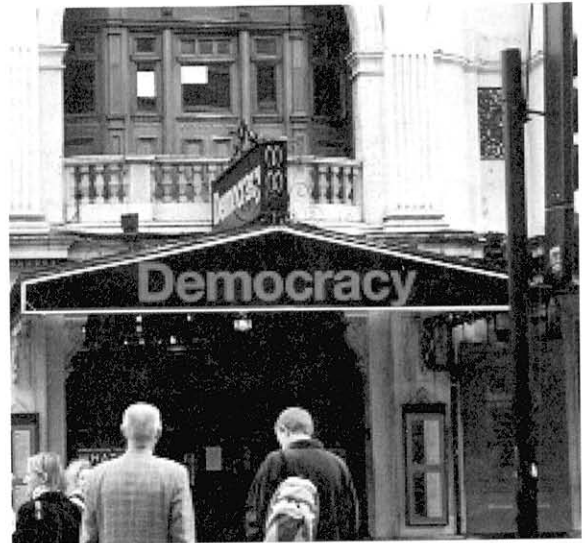
는, 회사명을 건 강연 프로그램이나 전시 프로그램으로 홍보 효과를 보기 때문에 후원금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고, 박물관 또한 공격적 경영의 성과를 이루면서 세계문화중심으로서의 대영제국의 이름을 날리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격적 경영 마케팅

밤 10시까지 개장 시간 연장, 특별 전시회에는 입장료 부과, 기념품 매장, 카페, 레스토랑과 지하 영화관 등 지속적인 수익사업 확장 등 복합적 문화공간으로의 자기변신이 놀라움지만 이는 실은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 문화상품의 위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식민지 지배의 포획물이었던 대영박물관의 문물들은 이제 대영박물관과 제국 영국의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영국의 문화적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람시간 연장은 관람객이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만큼 지출이 많아져 박물관 수익의 증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논리가 대영박물관을 떠받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96년부터 복권에서 나오는 기금을 투입하여 박물관의 재정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립 운영에까지 이르고 있지는 못하므로, 방문객 당 지출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독자적인 박물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입장이다. 물론 아직 유료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과학박물관의 경우, 관람객이 반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실히 대영 박물관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세계 문화유산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고, 또한 문화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사이버 상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개가 가능한 것은 런던이라는 도시 전체가 제국의 도시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고, 트라팔가 광장의 동물의 왕 사자상과 빅토리호를



런던 시내에 있는 민주(Democracy)와 자본(Capital) 이라는 이름의 카페

이끌고 전 유럽의 패권을 거머쥐었던 벨슨 제독의 하늘을 찌르는 동상 등 도시 전체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제국의 시대의 상징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 그 오프라인의 도저한 힘에 근저한 것이다.

노쇠한 제국과 디지털시대의 만남

노쇠한 제국과 디지털시대의 만남은 이처럼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새로운 문화상품의 형태로 탈바꿈시켜놓으며 신자유주의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자본주의의 두 얼굴, 자본(Capital)과 민주(Democracy) 또한 아직 건재하다.